



INVITATION

신영자산운용

2018 투자자 포럼

펀드운용 보고 및 펀드매니저와의 대화

일 자 |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시 간 | 14:00~16:30

장 소 | 코엑스 오디토리움 (자세한 위치 등은 참가신청시 확인 가능)

| 모시는 말씀 |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입니다.

그동안 신영자산운용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투자자포럼을 개최하여 투자환경을 짚어보고,

투자의 방향을 펀드매니저와 함께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현명한 투자 대안을 찾으실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 참가신청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http://www.syforum2018.co.kr> 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산운용

| CEO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입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을 되돌아보면 대내외 정치 이벤트,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사드 보복 등 국내 경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제공한 이슈들이 어느때 보다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회복과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매력 및 기업들의 탄탄한 기업실적을 기반으로 한 우호적 수급 환경이 주식시장에 긍정적 기여를 하며 10년간의 박스권을 탈출하는 기록적인 한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IT기업 및 KOSDAQ내 바이오기업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세가 크게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21년간 가치투자철학을 원칙으로 당사는 올해도 가치주, 배당주 투자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보다 매력적인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데에 매진하였으며, 특히나 올해 장기간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저평가 중소형주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기 위해 중소형주 펀드를 출시하여 기대 이상의 관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 앞으로의 한국의 주식시장은 어떤 청사진을 보여줄 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지배구조개선, 소득주도성장, 혁신기업중심성장,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경제활성화 방안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정책들이 가시화되며 기업에 대한 투자여건은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부동산과열 억제 정책 등 본격적인 투자자산의 증시 유입 촉진계획 등이 나오며 국내 주식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저성장, 저금리 환경하에서 높아지는 세금부담과 고령화사회 진입이라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환경 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 다시말해 하락 리스크가 낮은 내재가치가 확실한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개별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망 기업의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세월에 대한 부담과 저금리 환경에서 보다 자유로운 자산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인간의 투기심리가 반영되어 기회의 장이기도 하지만 곳곳에 높은 위험과 변동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철하게 가치를 산정하고 평가하여 시간에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운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주가는 항상 내재가치에 수렴하여 왔고, 또한 기대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시간의 투자와 인내가 오늘날 저희가 운용하는 펀드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신영자산운용은 2018년 3월 15일 3회째를 맞는 투자자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 펀드에 투자하고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고객 여러분께 당사 펀드의 투자전략과 향후 운용계획을 담당 펀드 매니저와 직접 소통하실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면서 인생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관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2018 신영자산운용 투자자포럼 : 2018년 3월 15일(목요일) 오후 2시~ 코엑스오디토리움)

다시한번, 변화무쌍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투자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영자산운용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겨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

허 남 권



펀드매니저가 들려주는

신영주니어 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017. 10.27. ~ 2018. 01.26.

 신영자산운용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맡아 운용하고 있는 펀드매니저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펀드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이익은 얼마나 났는지 같이 살펴 볼까요.

우리 주니어경제박사 펀드가 갖고 있던 중소형 가치주들이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보였어요. 3개월 동안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 이익도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시장이 상승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정부가 벤처산업을 키우려고 하면서 KOSDAQ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학, 철강 및 금속, 서비스 업종과 높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 업종의 성과가 긍정적이었구요. 국내 시장이 회복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유통업종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반면 전기가스 업종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2017년은 석유화학, 철강 등 경기민감업종의 수출주와 반도체 업종 위주로 기업이익이 늘어나면서 국내 시장이 2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른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 같네요. 다만 전체적인 시장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우리펀드의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주식들을 잘 골라서 펀드에 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우리 펀드는 선진국 자본투자와 연결된 기계 등의 업종과 소비회복이 되면 자체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레저, 의류 등의 업종을 높게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펀드 성적을 살펴 볼까요~!

<주니어경제박사 수익률 및 펀드 규모> 기준일 : 2018. 01.26.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10.66%

최근 3개월 수익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017. 10.27. ~ 2018. 01.26.) +11.09%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이 +3.46%인 것에 비하면 7.63%포인트만큼 높습니다.

최근 5년 수익률

+70.57%

비교지수 : +30.25%
비교지수대비 : +40.32%포인트

최근 3년 수익률

+59.58%

비교지수 : +30.10%
비교지수대비 : +29.48%포인트

최근 1년 수익률

+32.64%

비교지수 : +21.20%
비교지수대비 : +11.44%포인트

29,523 백만원

순자산 총액

+12.19%포인트

증감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투자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담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순자산 총액이에요.

순자산 총액이 3개월 전 보다 +12.19%포인트 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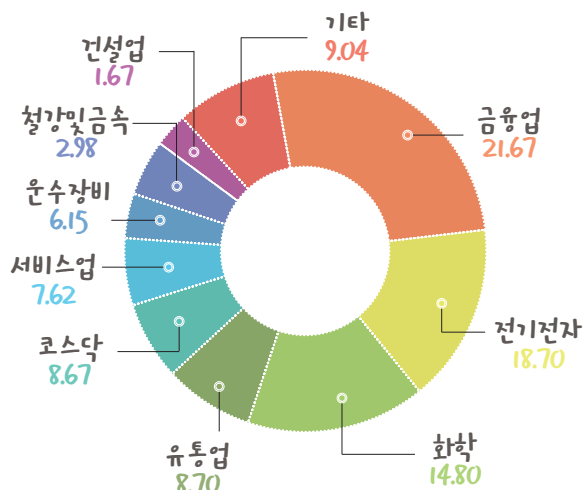
※ 증감률이란? 우리 펀드가 3개월 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말해줘요.

우리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에는 주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펀드매니저가 여러 회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평가하여 앞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회사를 신중하게 골라내어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 안에 담았어요.

우리 투자 바구니 안에는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업종별 투자비중>



<주요 투자 종목>

(기준일: 2017. 10.26., 단위: %)

1위	삼성전자	11.75	6위	LG전자	1.94
2위	LS	3.22	7위	LG	1.90
3위	한국금융지주	2.38	8위	신세계	1.84
4위	POSCO	2.17	9위	LG화학	1.75
5위	KCC	2.14	10위	OCI	1.75

2018년 1월 26일 기준으로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금융업종을 이전과 변함없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네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LS, 한국금융지주와 같은 종목을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네요. 특히 한국금융지주는 3개월 전에는 상위10종목 안에 없던 종목인데 이번에는 3위를 기록하였어요.

<주니어경제박사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볼까요?>

友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는 증권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그룹입니다. 시장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시켜서 기업에게는 자금 조달을 하고, 투자자에게는 주식 등에 투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SHINSEGAE

신세계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로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소비트렌드에 맞추는 백화점으로 해외백화점과는 다르게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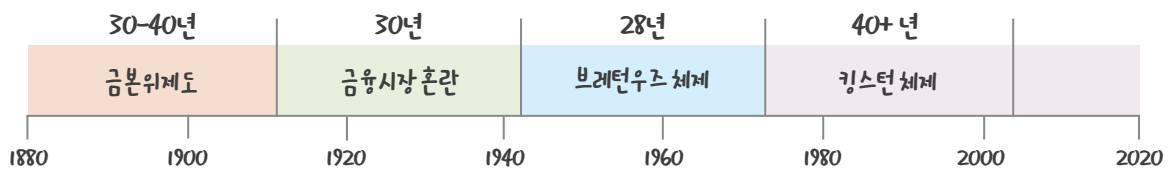
OCI 주식회사

OCI

석유화학제품 등을 만드는 종합화학업체입니다. 화학 기술을 활용해서 고성장, 고수익이 기대되는 사업들을 해오고 있어요.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을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과 같은 에너지사업에도 이용하고, 반도체 등과 같은 첨단기술산업에도 이용 하는 기업입니다.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화폐 역사 이야기

수 천년 역사 속에서 화폐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쓰이고 있는 기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5천년 전 이집트인들에게 돈은 금이었습니다. 물물교환을 하던 사람들이 코코넛 10개당 금 1조각과 같은 방식으로 교환을 하였습니다. 돈은 사람들끼리 서로 교환 가능해야 하고, 갖고 다니기 편해야 하며, 잔돈이 쪼개지듯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금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지요. 게다가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 무한대로 만들어나가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으로 충분하였죠. 그렇다면 금을 돈으로 쓰다가 지금의 화폐제도로 넘어오게 된 과정을 알아볼까요?



금을 기준으로 하는 시스템인 금본위제도(1800년~1914년)가 전세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화폐는 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명서 역할을 했습니다. 보관창고에 물건을 맡기면 보관증을 주듯이 10\$은 10\$ 값어치의 금이 은행금고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요한 가치는 보관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있지요. 이처럼 종이화폐의 가치를 뒷받침하는건 금이었습니다.

금본위제도는 1차세계대전 전까지는 유지되었답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전쟁으로 인해 돈을 쓸 곳이 늘어나는데 금은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돈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어. 그러자 각 나라가 종이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내게 되었습니다. 종이 화폐를 계속 찍어 내다보니 금과 종이화폐가 비율이 더 이상 이전처럼 동일하지 않았겠쥬. 금본위제도는 무너지고 혼란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화제도가 필요했어. 혼란의 시기인 12차 대전 중에 유럽은 미국에 금을 지불하고, 미국은 곡물 등을 팔았답니다. 그 결과로 2차 세계 대전 말에 전세계 중앙 은행에서 보유하는 금의 대부분을 미국이 갖고 있었고 유럽에는 금이 거의 없었어. 미국이 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 믿을 수 있는 미국이 발행한 달러를 국제통화로 인정하게 되는 제도가 탄생합니다. 달러만 금에 고정하고, 다른 화폐들은 전부 미국 달러에 고정해서 교환비율을 유지 했지요. 모든 화폐를 미국달러로 보증하는 브레턴우즈체제 (1944년~1971년)가 생긴 것이지요.

그 이후 프랑스 대통령을 포함하여 전세계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금을 되돌려 달라는 소동을 벌여서 1959년에서 1971년 사이에 미국은 절반에 가까운 금을 잃어버렸어. 전세계 나라들이 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미국은 실제 갖고 있는 금에 비해 더 많은 화폐를 이미 찍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갚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리하여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지고 또 화폐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킹스턴체제(1976년~현재)에서는 각 나라가 스스로 자유롭게 통화를 찍어내고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금과 같이 생산량이 한정된 자산, 미국달러가 기준이 되어 돈의 가치를 보증했다면 이제는 각 나라가 자국의 돈의 가치를 보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가 자유롭게 통화를 찍어낼 수 있게 된 이후로 40년 정도 현재의 화폐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금본위제도 실시 이후로 역사는 30~40년마다 화폐제도가 바뀌어 왔었어. 그렇다면 40년 이 흐른 지금 전세계의 경제를 위해 새로운 화폐제도가 필요한 날이 멀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화폐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까요? 주니어 경제박사 여러분들도 과거의 화폐제도 변화과정을 통하여 미래에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주식)의 3개월 수익률은 +11.09%로 비교지수 +3.46% 대비 7.63%p 상승하였습니다.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운용경과>

동펀드가 비교지수 대비 상승한 것은 펀드가 보유한 중소형 가치주가 반등한 가운데 시장 대비 높은 비중으로 보유한 서비스업, 유통, 화학 등 업종이 양호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기조 유지, 글로벌 경기회복과 기업이익 개선 등 긍정적 요인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OSPI도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의 호조세 및 한국 증시의 저평가 매력에 여전히 유지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초 이후 소외가 지속된 KOSDAQ도 정부의 벤처산업 육성 의지가 부각되고 연기금의 KOSDAQ 투자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며 반등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의 주가가 상승한 가운데 견조한 이익성장을 보이고 있는 화학, 철강 및 금속, 서비스 업종과 성장성이 부각된 의약품 업종, 내수 회복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유통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업황 둔화 우려로 운수창고, 전기가스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펀드는 주가 소외로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대형 우량주와 향후 2~3년 사이에 기업가치 상승이 진행될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성장가치가 있는 중소형주의 편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

향후 주식시장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기업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며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은 원자재를 비롯한 상품가격과 신흥국 환율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미국과 독일, 중국 등 글로벌 경기회복이 진행되며 글로벌 경기와 증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혜로 석유, 화학, 철강 등 경기민감업종의 수출주와 글로벌로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이익이 증가했으며 KOSPI가 2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현재 발표되는 각국의 긍정적인 경제지표에 더해 미국의 소비 및 기업투자, 중국의 지속적인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경기회복국면의 지속을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지속되는 수출 호조와 더불어 기업 실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KOSPI는 선진국/신흥국 대비 저평가되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출지표, 기업이익의 증가율 둔화 및 현재까지의 주가 상승으로 2018년은 주식시장을 둘러싼 외부 환경보다 기업 본질의 경쟁력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며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더욱 옥석가리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상대적 수익률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높은 비중을 유지한 경기민감업과 경기소비재 업종 중에서도 세분화 하여 선진국의 자본재 투자와 연관된 기계, 소재 등 업종과 소비회복과 더불어 자체 성장이 가능한 레저, 콘텐츠, 일부 유통/의료 업종을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자 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보유한 IT업종은 조정 시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18년에도 실적 개선세에 따라 차별화 될 종목,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 발굴 및 저가 편입에 집중하여 펀드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